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3일(월)

장 소 정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2.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성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선 입법심의관입니다.

김선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인사)

세 분이 바뀌었는데 환영합니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권성동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안 오셨는데 위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우리 새로 1차장께서 오셨는데 공개된 자리니까,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말 하실 건 없으신 것 같고 오호룡 제1차장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2.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10시04분)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예,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기현 위원 오늘 국정원에서 요청한 비공개 간담회가 본 회의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저는 국정원이 심대한 직무유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비공개 의결하기 전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보면 대테러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에 관련되어서 ‘제1호 및 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즉 나열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로 국정원은 조사하고 이것을 수집·배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 내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고 햇수로는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이러한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단 한 번도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시다. 이 업무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것이고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정보의 수집·배포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서 일부 포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현안질의를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란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위의 역할이 크고, 내란과 외환유치죄까지 지금 특검의 소재로 들어가 있는데 내란·외환 유치죄에 관련되어서 국정원의 보고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시다.

다른 분들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박선원 위원 그러면 내란 부분하고 구별을 하시지요.

○위원장 신성범 저는 이기현 위원님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말 죄

송한데 오늘 비공개로 보고도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게 맞지……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입니다.

이기현 위원님의 문제 제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보고 내용이 단순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군 포로에 관련된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란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논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라든지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북한 내부 그리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짚는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안보라든지 외교 그리고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각 상임위별로 주어진 고유의 업무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때까지 정보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다룰 때 다들 참여를 해보셔서 알지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원래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오히려 비공개로 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모적인 논쟁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내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따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 전환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범** 잠깐만, 더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위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새로 보임되어 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정보위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보위원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와 국가정보원이 좀 더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권성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청원심사소위원회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큼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저의 권한으로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 과정에서 원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원의 입장과 그동안에 수집된 걸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원 위원** 지금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국정원의 직무를 잘 모르시면서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에 계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보 관련 여러 부서에 관한 현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국가

정보원은 중심에 있지요. 그 중심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바로 내란죄 또 형법상 군반란죄 그리고 외환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배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이 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안보실장으로서의 조태용,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 신원식 국방장관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 계엄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셨고 바로 그다음 달인 24년 1월 달에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하셨고 2024년 3월 말에 다시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현 당시 처장,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 등 있는 자리에서 다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을 거론해서 충분히 내란 등의 움직임이 있음을 포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원장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셨지 않습니까, 12월 3일 저녁에? 국무회의 정식 멤버도 아닌데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홍장원의 보고까지 받고 그 이후 내란, 외환, 군형법상의 반란죄까지 다 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직무에 되어 있잖아요. 직무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원래 남북관계하고 우크라이나, 한미 동맹,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것은 관례에 따라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비공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란에 관한 부분은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44년 만에 일어난 쿠데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동안 뭘 조사했고 그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국정원이 파악하는 국군정보사에서의 문제점—직접 관할하고 있어요—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부분을 먼저 하시고 비공개를 뒤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이기현 위원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기현 위원 제가 국정원법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테러방지법도 국정원 소관 법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테러의 정의를 보면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각 호의 행위를 말하는데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며 체포·감금·약취·유인, 인질로 삼는 행위를 테러의 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면 테러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거나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장은 대테러 조사 및 대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보위에 일체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국정원에서 저희 위원회를 설득할 만한 합당한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후의 계획을 대지 않으면 저희들이 비공개로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저희 정보위원회에 부여한 임무를 망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잘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고 특히나 두 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국정원이 내란, 외환의 정

보를 사전에 수집해야 될 의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비공개 회의에서 따지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이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잠깐만, 나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외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박선원 위원 공소장에 내란과 폭동 다 들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권성동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박선원 위원 오늘 보임 받았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권성동 위원 박 위원!

○박선원 위원 권 위원, 똑바로 해!

○이성권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함부로 해요?

○권성동 위원 반말해요?

○박선원 위원 뭘 반말해요?

○권성동 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내가 박선원 위원이 발언할 때 한번 개입했습니까? 관여를 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범 잠깐만 들어 보시고요.

○권성동 위원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해야지요.

그리고 국회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위원장이 질의권을 주고 발언권을 주면 그 시간은 저의 독점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언제 박선원 위원이나 이기현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범 말씀하세요.

○박선원 위원 공소장에 있다는 걸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위원장 신성범 말씀 다 하셨나요?

○권성동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인데, 국가정보원장이 무슨 내란죄를 범했느니 외환죄를 범했느니 이런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이미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소를 하겠다거나 구속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내란죄에 연루됐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회의를 보이콧했어요, 보고를 못 받겠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보고를 받겠다 그러면 그건 뭘니까? 앞뒤가 맞는 겁니까?

○박선원 위원 예.

○권성동 위원 아직 발언시간 남아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예의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펴면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그리고 정보위 회의는 공개회의를 한 적이 인사청문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이기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기현 위원 권성동 대표님 국회 선수도 위인데 국회법에 정보위가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국회법 안 보셨어요? 국회법에 모든 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정보위가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국회법 정신을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국정원장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정원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고 국정원이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수집·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성범 잘 들었습니다.

의견이 많습시다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위원장 직권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신성범 현안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님과 간부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5인)	박선원 위성락 이기현	더불어민주당(3)
	권영세 ◎이성권	국민의힘(2)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예산결산심사(5인)	김병기 ◎박선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3)
	유영하 이성권	국민의힘(2)
청원심사(5인)	박지원 박찬대 위성락	더불어민주당(3)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0인)

권성동 김병기 박선원 박지원 신성범 위성락 유영하 이기현 이성권 이인영

○청가 위원(1인)

권영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입법심의관 김광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조태용

제1차장 오호룡

제2차장 황원진

제3차장 윤오준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추경호	권성동	국민의힘	2024. 12. 14.

○행정입법 제출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24. 12. 19.